

남북의 말과 글, 왜 자꾸 달라지나

북한언어연구회 편 「북한의 어학혁명」을 읽고

북녘의 말이 남녘의 말과 많이 달라졌다는 보도를 자주 듣는다. 한글맞춤법이 달라졌음을 뜻할 때도 있으나, 주로 우리말의 어휘구성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 내용은 주로 북한의 '어학혁명'에 의해 '언어 이질화'가 더욱 깊어진다는 것이다. 최근 '북한언어연구회'에서 펴낸 「북한의 어학혁명」(백의, '89)은 바로 이런 시각에서 씌어진 책이다. 이 책의 내용을 세밀하게 분석하자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겠으나, 전체적인 관점은 김민수교수의 머리글 「북한 문화어와 어학혁명」에 아주 집약적으로 나타난다. 이런 주장은 오래 전부터 제도권 신문들이 독자들에게 끊임없이 주입해 오던 것인데, 어느덧 옳은 것으로 되어버렸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어떤 객관적인 근거를 갖고 있지 않다.

'이질화'란 달라진다는 뜻이다. 여기서 차근 차근 따져야 할 문제는 달라짐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하는 일이다. 북쪽말이, 특히 그 어휘체계에서 남쪽의 그것과 그냥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들춰내는 것이라면 옳은 말이다. 그러나 달라졌다는 말이 '가로수'란 말을 그쪽에서는 왜 '거리나무'로 바꾸어 놓는가, '레코드'란 낱말은 왜 '소리판'이란 낱말로 바꾸며, '파마'를 왜 '볶음머리'라고 하는가라는 투의 나무랄라하면 이는 부당한 비난이다. 거리·나무·소리·판·볶음·머리 등은 우리말의 기본어휘에 속한다. 그런 말에는 남북의 구별이 없다. 오랜 세월을 걸쳐 우리의

조상들이 쓰던 말이며,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한테 배운 정겨운 말이다. 이런 기본어휘가 새말을 만드는 재료가 되어야 우리말이 자연스럽게 자라날 수 있다. 위에 소개된 새말들은 쉬운 기본어휘를 자료로 만들어진 매우 잘된 말이다. 그러나 가로수, 레코드, 파마는 우리말의 기본어휘와 아무런 연관도 없는 외래말이다. 이런 외래말 탓으로 우리말의 낱말들은 모래알처럼 흩어진 말이 되었다. 말의 순수성이 흐트러짐은 두말할 필요없다. 우리말의 기본어휘에는 한자로 된 것도 있지만 고유한 우리말이 더 많다. 따라서 새말 만들기에 고유어 어근을 존중하지는 생각은 제대로 된 것이다. 북쪽의 언어정책은 이 점을 아주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런데 남쪽의 상황을 보면 새로 생겨나는 말은 거의 한자말이거나 서양말이다. 그래서 새말이 기본어휘와 담을 쌓아, 기본어휘가 기본이 되지 못하는 매우 자연스럽게 못한 처지에 있다. 쌀-쌀값-쌀통으로 늘어나야 할 말이 쌀, 미가, 라이스박스처럼 되어버린다. 바로 이러한 외래어들이 남북의 말글이 달라지는 으뜸가는 요인이다. 토박이말이 자연스럽게 늘어난 북쪽과는 아주 판판이다. 기본어휘를 기준으로 보면 달라진 것은 북쪽말이라기보다 남쪽말이라는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

북쪽의 '어학혁명'으로 남북의 말글이 달라진다고 무슨 큰 발견이나 한듯이 소란을 떠는

학자들은 중요한 사실을 까마득히 잊고 있다. 인쇄매체를 통하여 드러나는 남북 말글의 가장 큰 차이는, 남쪽에서는 아직도 제법 한자가 쓰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말의 문제가 아니라 글자의 문제라고 쳐버릴 것이 아니다. 주시경의 말을 빌리면, 글자는 단순히 '말을 담는 그릇'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을 담는 기계구실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쪽에서는 한자를 오래 전에 폐지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대로 쓰이고 있다는 데서 오는 남북의 말글 달라짐은 결코 적은 것이라 할 수 없다. 이 점은 아주 단순하고도 평범한 사실인데도 이를 애써 외면하면서 북쪽을 탓하기만 하는 것은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다.

남과 북의 말다듬기는 모두 어려운 한자말·서양 외래말을 쉬운 토박이말로 풀어낸 것인데, 서로 같거나 아주 비슷한 말이 많다. '첨가하다, 침수하다, 집요하다'들을 '덧붙이다, 물에 잠기다, 끈덕지다'로 바꾼 것은 똑같다. '날조하다'를 '가짜 만들다'(남)나 '꾸며내다'(북)로 바꾸고, '촉박하다'를 '닥치다'(남)나 '몹시 급하다'(북)로 바꾼들 이해에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어학혁명'에 따른 말다듬기가 '이질화'의 원인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또한 북에서 말하는 '어학혁명'의 실체를 우리는 바로 보아야 한다. '어학혁명'이란 그 알짜는 우리말 다듬기일 뿐 혁명이 아니며, 이는 1966년에 나온 「조선어의 민족적 특성을 옹호 살려나갈데 대하여」에 분명히 나타난

다. '어학혁명'이란 개념 자체가 모순은 아니지만, 언어에는 혁명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은 오래 전에 확인된 진실이다. 말을 '혁명과 건설의 힘있는 무기'로 보는 것도 언어(학)의 자율성과 긴장관계에 있다. 계급혁명의 도구로 본다면 더욱 그렇다. 당연히 한계를 갖는다. 혁명이란 말에 알레르기반응을 일으켜서는 안 되겠다.

남북의 말글 달라짐이 큰 관심사로 된 요즘, 남쪽에서는 이제까지 우리말을 제대로 가꾸려는 노력이 크게 모자랐음을 겸허하게 뒤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근거없이 북쪽을 비난하거나 대립과 파쟁을 일삼아서야 되겠는가. 진정으로 '민족어의 이질화를 극복'하려면 이의 가장 큰 걸림돌인 한자폐지를 단행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 뒤에 우리말 어근을 재료로 새말을 많이 만드는 작업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김영환

부산공업대 교양과 전임강사·철학

삶의 의미를 걸러내는 여과지

칼릴 지브란의 「모래·물거품」

「모래·물거품」(진선·89)은 이미 국내 독자들로부터 많은 아낌을 받고 있는 칼릴 지브란의 작품이다.

서점에 나가보면 꽤 여러권의 칼릴 지브란 책들이 눈에 띄는데, 이들 중 몇권은 이미 출간된 책들에서 부분부분 발췌해 펴낸 누더기식의 책들이다. 이에 비해 이 책은 87년도판 「샌드 앤드 폼」(Sand and Foam)의 완역이어서 새로운 느낌을 느끼게 한다. 그리고 개인적인 느낌인지는 몰라도, 서정적이면서도 깔끔한 번역(정은하 옮김) 또한 칼릴 지브란의 번역서들 중에서 돋보인다.

이 책은 명언집을 연상케 하는 짙막한 글귀

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이 '짧음' 속에는 많은 생각들이 담겨 있어서, 그 어떤 긴 연설보다도 깊은 감동을 느끼게 한다. 가장 원초적인 인간다움, 잊고 살았던 감성, 삶의 아름다움 같은 것들을 조용하게 불러일으켜 독자로 하여금 문득 자신의 내밀한 곳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지브란 작품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작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은 바로 인간애이다. 자신을 돌아보고 다듬으며 사는 것만큼 중요한, 더불어 이해하며 살아야 하는 인간관계. 기계적인 일상에서 형식적인 것으로 변질돼버린 인간관계를 이해와 사랑으로 새롭게

게 해야 한다고 지브란은 말한다. 자신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일이 우리의 주변에는 얼마나 많은가. 살아가는 모습은 비록 다를지라도 인간 본연의 무엇인가를 통해 서로 공감하는 인간관계, 눈으로 보여 줄 수 없어서 더 큰 이해를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짚어낼 줄 아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

지브란은 시끄러운 지성보다는 침묵할 줄 아는 감성을 더 소중하게 생각했는데, 바로 이것이 그의 글들을 극도로 절제되면서도 많은 의미를 지니고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리라고 생각한다.

시 한편에도 그보다 더 긴 설명을 붙여야만 흡족해 하는 요즘, 감정적이 아닌 감성적인 인간의 아름다움을 스스로 포기하는 일 없이, 혼탁하고 소란스런 세상일수록 가끔은 조금 물러서서 나무가 아닌 숲을 바라보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인간 스스로 만들고서는

간혀버린 온갖 법칙과 굴레에서 벗어나 삶이 지닌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드러나지 않는 것이라서 혹 간직하며 살아야 할 중요한 부분을 잃은 일은 없는지, 지브란의 글을 읽으며 곰곰이 생각해본다. 산다는 것, 그것도 함께 산다는 것에 있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느끼는 데에 칼릴 지브란의 글들이 질 좋은 여과지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한다.

장미란

강원도 춘천시 후평동 세경아파트 2단지 1동 509호·주부

'알 권리'의 문학적 형상화

홍인표의 「하얀 집의 왕」

말할 것도 없이 소설은 허구의 세계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현실과 近似한 사회적 총체성의 모습과 만날 수 있다. 소설이 때로 필화사건을 겪는 것은 원칙적으로 정치의 민주화가 되지 못한 때문이지만, 그것이 담고 있는 강한 현실성도 한몫함은 물론이다. 가령 위정자들이 보아서 심기가 불편한 이야기일 경우 더욱 그렇다.

그러나 그것이 국민의 '알 권리'의 하나임은 물론이다. 예컨대 통일이나 감옥, 혹은 군대 이야기들이 그런 것들이다. 이런 흐름을 타고 최근 출간된 홍인표의 장편소설 「하얀 집의 왕」도 그런 이야기이다. 일반국민들에게 차단된 세계의 문학적 형상화라는 점에서 주목을 끌기에 충분한 「하얀 집의 왕」은 현실 교도관이 쓴 소설이다.

표제에서 암시받을 수 있듯이 '하얀 집'은 교도소로, '왕'은 교도소장을 상징하는 이 소설은, 그러나 교도소 안의 살풍경한 모습들을 고발하려는 단순성에서 벗어나 있다. 「하얀 집의 왕」은 교도소장의 포악하고 탐욕스런 인간상을 써줄로 하고 일반잡범이 아닌 시국사범들의 생활상을 날줄로 하는 구조면에서도 드러나지만, 그 배경이 저 '광주'라는 점에서도 드러냄 이상의 무언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런 점에서 교도소장 최건석은 훌륭한 반동적 인물이다. 비록 '광주'가 무력에 의해 잠들고난 후 최건석의 부임으로 소설이 시작되고 있지만, 그의 왕이라 자처하는 권위주의와

'그분'이 사용한 재떨이라며 보물단지 보관하듯하는 아첨주의는 성격창조의 탁월함과 동시에 핀트의 콘트라스트 효과에서도 압권이다. 더욱이 최건석이 저지르고 있는 온갖 비리와 사악한 교도행정에 따르는 과장 이하 주임들의 무기력함에서 우리는 과거 잘못된 시대의 아픔과 만나게 된다. 그리고 문학적 진실이 갖는 그 통쾌함에 새삼 놀라게 된다.

한편 유기적 연관을 갖지는 못하지만 부석, 관연 등 양심수들의 시점에서 드러나는 교도소내의 비인권적 작태 역시 우리에게는 소중한 '알 권리'가 아닐 수 없다. 그것이 하필 교도소에서 뿐이라. 언론의 자유가 강화되고 기본권 신장이 가속화된다는 시류가 반증하듯, 정치의 민주화가 덜된 나라에서라면 흔해 빠진 진실의 은폐와 정의의 외로움은 비단 '하얀 집'이 아닌, 사회 도처에서도 연일 끊어 넘치는 것을 이 소설은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특히 최건석이 녹조근정훈장을 받는다는 결말은 '도적놈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라는데 이의가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다만 리얼리즘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절제되지 못한 작가의 목소리는 장편소설이 취하는 전지적 작가시점과도 무관하지 않겠지만, 묘사보다는 서술쪽에 의존한 기술방식에 더 큰 이유가 있지 않나 생각된다.

장세진

전남 구례고등학교 교사

예술과 인간적 삶의 갈등

강석경의 「가까운 골짜기」

강석경의 장편소설 「가까운 골짜기」(민음사)는 작가후기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비본질적인 것에 등 돌리고 치열하게 자기와 싸우는 예술가를 통해 진정한 인간적 삶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게 하는 소설이다. 시대배경을 유신말기로 잡아 '해방을 꿈꾸며 자기완성의 길로 가려는 예술가와 권력을 지키기 위해 억압의 길로 가는 독재자를 대비'시키기도 한다.

그러나 이 소설에서 내가 가장 감동받은 부분은 話者 윤희의 인간의식이다. 두 아이의 어머니이며 한 까다로운 예술가의 '전통적인 아내'이면서도 결코 평범하게 안주할 수 없는 그녀의 내면정신의 깊이에 관해서이다. 대부분 '사랑과 소유에 집착하는' 여성의 상투형을 깨고 그러면서도 여성들의 관계의 답답한 실상을 담담하게 묘사하면서 언제나 깨어 있으려는 여성의 자기인식이 한 예술가의 자기완성의 길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윤희와는 대조적이면서 치열하게 자기세계를 쌓아가는 이웃의 한 여성 예술가인 한민화의 삶과 의식을 서로 대비시킨 것도 감동적으로, 어느 쪽이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은 삶의 진실을 보여준다.

또한, 회조와 윤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사람들의 생활형태를 통해, '결혼'에 관한 어떠한 환상도 결국은 허구이며 우리가 부딪히는 현실은 자기와의 싸움이며 발견이라는

진실을 이 소설은 일깨우고 있다. 윤희는 천성적으로 따뜻한 품성을 지닌 여성이며, 사색의 깊이와 교양이 몸에 밴 여성이다. 말할 수 없이 까다롭고 독선적인 예술가인 남편 회조와, 묵묵히 남편을 내조하며 아이들을 사랑하고 현실문제와 부딪쳐 싸워가면서도 결코 자기를 잃지 않는 윤희의 삶의 모습을 대비시킴으로써, 회조의 자기투쟁의 삶이 회조를 바라보는 윤희 자신의 투쟁의 삶과 동일선상에 있음을 느끼게 한다.

남편 회조와 한민화가 서로 좋아하고 있음을 알고, 돌이켜 그것을 정신적인 섹스라고 규정한 윤희가 회조에게 그들 자신을 한번쯤 점검하고 진솔한 판단을 내리자는 제의를 했을 때, 현실에 무능한 회조의 한숨과도 같은 고백에서 윤희는 부부의 동반의 삶과 가족과 생활이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소설 속의 아름다운 소재목 '모두 다 꽃씨들을 가지고 있다'는 음미할수록 맛이 나는 구절이다. 작가의 바람대로 이 소설이 '이데올로기와 허상의 윤리로 경직된 이 사회를 조금이라도 유연하게'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을 가지며 일독을 권하고 싶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의 골짜기에서 자기 길을 찾아 헤매는 것이다.'

조원숙

부산시 진구 부전2동 526-15번지 8동4반

프로문학의 계급적 전형성

한설야의 「황혼」

하나의 문학작품이 작가의 손을 떠나 공중에게 보여지는 순간 그것은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적 차원의 의미를 획득하게 되며, 따라서 그에 대한 올바른 평가도 작가의 사사로이 의탁이 아닌 작품 그 자체에 의해 내려져야 한다. 그렇다면, 저간의 월북작가들의 작품에 대한 강요된 침묵은 분단이 빚은 반공체제적 냉전논리의 소산 외에, 문학적으로 아무 타당한 이유도 지니지 못하는 것이었다. 한설야가 1936년에 발표한 처녀장편소설 「황혼」(창작과 비평사)을 읽고 난 순간, 지난해의 부분적 해금에서도 작가가 제외된 '문학외적' 이유(월북하여 북한의 고위직을 지냈다

는)가 얼마나 어리석고 부당한 것인가를 재삼 확인하게 되는 것이다. 이 소설은 거칠게 표현한다면, 일제 예술자본가의 착취와 수탈에 대항하여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건강한 모습을 축으로 우유부단한 소시민적 인텔리의 고뇌와 영락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작가는 이 작품에서 조실부모하여 어렵게 공부한 지식여성 박여순의 방황과 노동운동에의 투신을 그 중심에 두고, "확실한 방향도 없이 끌리는 대로 이리로 저리로 움직여지는 소시민"적 부르주와 지식인 김경재와, 미자각된 노동자들을 일깨워 조직화하고 연대하면서 악덕자본가에게 맞서 투쟁하는 對自의 노동자

준식을 대립적인 구도로 배치하고 있다.

이 작품은 세명의 주요인물들의 궤적을 통해 프로문학이 지닌 계급적 관점과 전형성을 어느 정도 노출시키고 있다. 즉, 준식과 여순의 일관되고 건강한 의식에서는 노동자계급의 사회변혁적 가능성을, 경재의 '유예미결'하고 실천을 결여한 행적에서는 소시민적 부르주와의 기회주의적·타협적 속성과 파탄의 전망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 소설은 최원식교수의 지적처럼, 현실을 당위론적으로 파악하고 묘사했던 기존 프로문학의 오류를 어느 정도 극복하고 있다. 그것은 "대상의 전체성 속에서 구체적 특수성을 관찰"해야 한다는 작가의 주장이 작품현실의 묘사에서 '생동하는 형상화'로 관철되었다는 의미이다. 사소한 일상의 표현에서 드러나는 작가의 생생하고 꼼꼼한 묘사나 대화의 사실적이고 생동하는 표현은, 대상의 '구체적 특수성'을 구현하려는 그의 세심한 배려와 치열한

작가정신을 엿볼 수 있게 한다.

여러가지 미덕에도 불구하고 「황혼」은 사소한 결가지의 묘사에 지나치게 많은 분량을 소모하였다는 면, 자본가 대 노동자의 대립이라는 계급적 갈등이 극히 미약하게 그려졌다는 면, 그리하여 결국에는 이 작품이 의도하는 주제의 선명한 부각에 실패하고 있다는 면 등에서 적잖은 아쉬움을 안겨 주었다. 그러나 당시(1930년대)가 일제의 파쇼적 탄압이 점점 극렬해지던 암흑기였고, 가장 초보적인 노동운동조차 거의 불가능했던 시기였음을 감안한다면 우리는 이 소설의 성취와 한계에 대해 좀더 너그러워질 수 있으리라고 본다.

김상현

충북 청원군 미원면 미원5구 593·군인